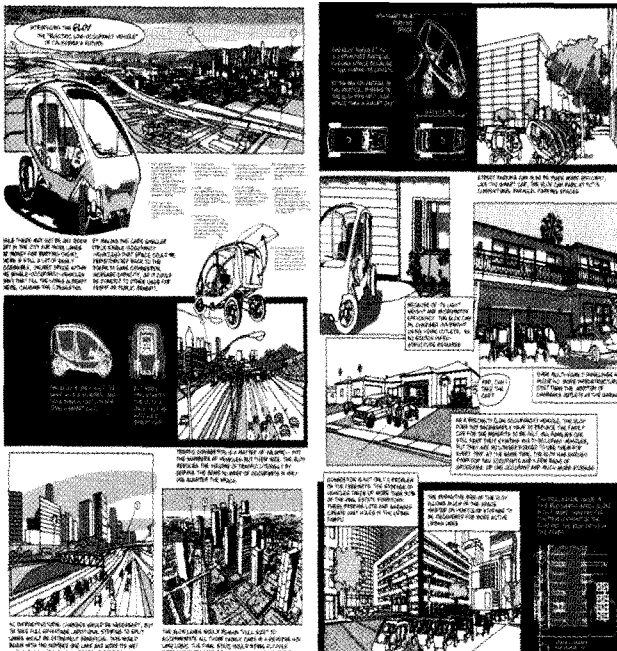


김은미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 Kim, Eunmee |

SOUPERgreen at LA's Architecture + Design Museum

기술과 자연



Courtesy Jones Partners Architects

“더 활기차고, 근사하며 병적이고 완벽한 자연의 경험” 위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적 한계를 넘기를 원하는 LA의 다섯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SOUPERgreen’ 전시는 블랙큐머로 가득하다. LA 건축+디자인 박물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드로잉과 모델들로 펼쳐지는 선언문으로, 현 실태에 대한 반감, 철학 그리고 교훈들이 번갈아 등장한다. LA의 다섯 건축가(Wes Jones, Doug Jackson, Aryan Omar, Steven Purvis, and Randolph Ruiz)는 환경변화로 부터 발생하는 암울한 사실들에 맞서기 위해선 자유롭고 아이러니한 상상력과 함께 매우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SOUPER”라는 타이틀로 시작된 이 전시에서, 참여한 5명의 건축가들은 *SOUPER 라는 문자 그대로 함축하여 그 개념이 표현되는 작업을 만들어 내었다. 자동차가 과거의 자연의 한계를 밀치고 인류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듯이, 전시에서는 건물들이 현재의 한계를 밀어내고 앞으로 더 다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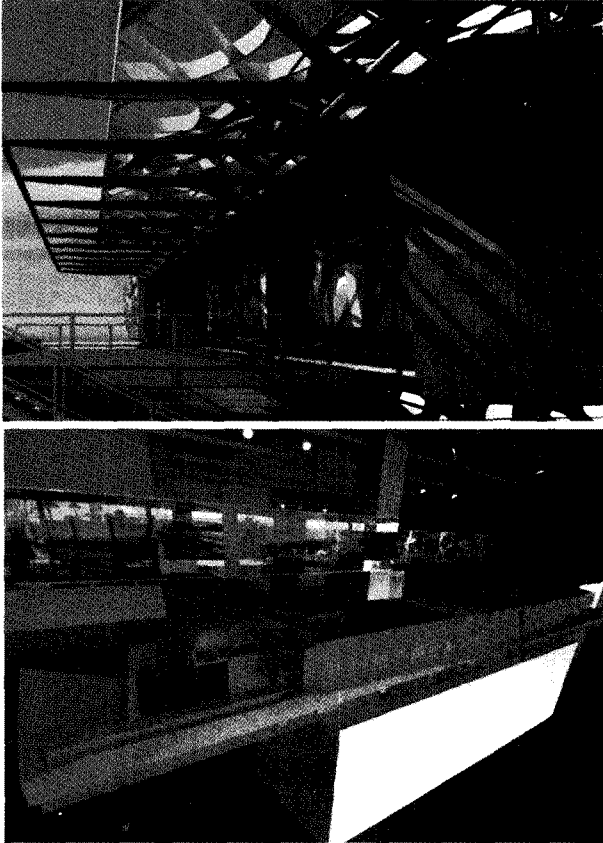
*SOUPER는 프랑스어로 늦은 저녁이나 야식을 의미하기도 하나, 아일랜드 대기근시 주유였던 가톨릭교에 대항한 다른 개신교파들이 제공하던 무상 급식을 말한다.

이 전시를 끌고 가는 주요 인물인 Jones Partners Architects의 웨스 존스는 좀 더 실용적이고 실현가능한 작품을 제안하였다. 잘 알려진 그의 하드웨어적인 기술에 대한 집착과 신랄한 만화적 표현으로, 존스는 ‘ELOV’(electric low-occupancy vehicle)을 전시에서 소개하고 있다. 움직이는 만화 영상에서, 존스는 고속도로 기술자들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 놓고 있다.

“거대한 차량은 있어라, 스마트카의 절반 사이즈로 줄어든 자동차가 미래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 날렵한 형태의 차량이 LA의 고속도로 정체와 그 정체의 원인 중 하나인 혼자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는 고집스러운 사실에 대한 해결책이다. ‘ELOV’는 혼자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현재의 하나의 차로의 반으로 나누어 공유하게 만든다. ‘EVOV’의 운행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자동차선은 현재의 교통량의 두 배를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난쟁이 잭(MIT의 컨셉트카)은 경계석의 수직방향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차의 머리 쪽을 세울 수 있어 더 많은 주차 공간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종이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해결책으로 도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주차공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적응수용 많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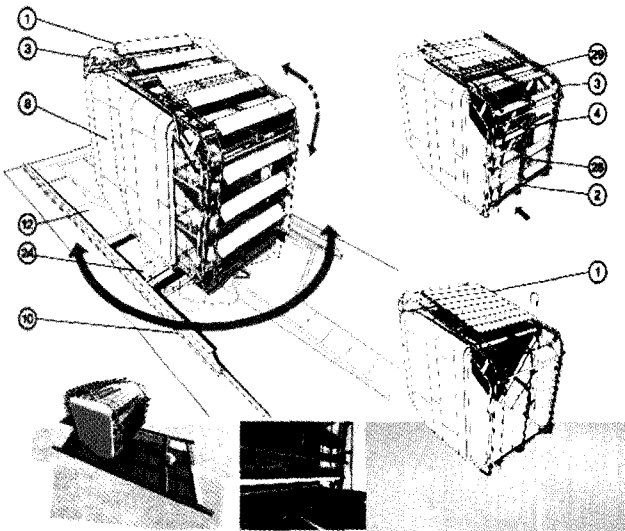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전시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희망과 절망으로 구성

된 일종의 농담이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ELOVs'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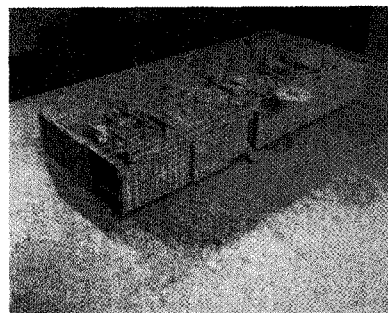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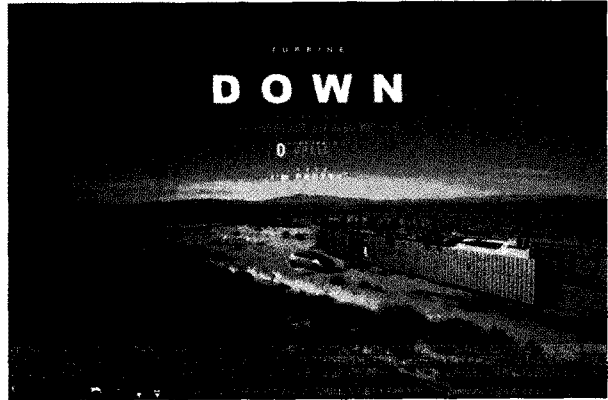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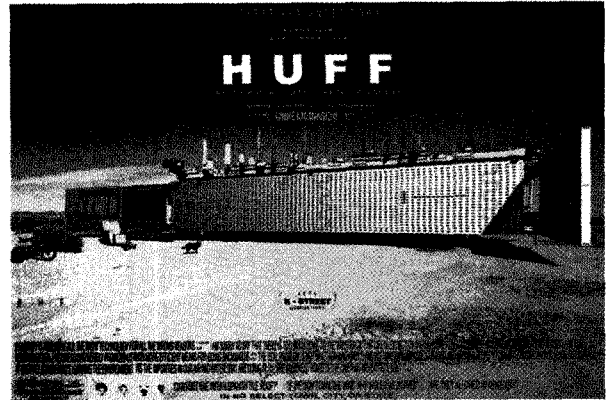
Courtesy of Randolph R. Ruiz

랜돌프 루이즈는 이 전시에서 산 페르난도 계곡에 292,000 스퀘어풋의 창고 지붕에 "지속가능한 실험적 기술의 농장 주거"라는 타이틀의 농장과 농장주택을 제시하였다. 이 작품을 아직은 비실용적인 '삶과 일' 그리고 '독창적인 공장-생산 형 농장'이라는 궁극의 조합을 표현하고 있다.



Courtesy of Steven Purvis

"나를 먹여라"는 스티븐 펄비스의 'Aquaponic House'로 어장과 거머리 연못 그리고 닭장을 가진 삼층 짜리 움직이는 온실과 주택이다. 철길의 따라 움직이는 이 창고형 주택은 탈곡기계와 욕외 화장실을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당장 농부들에게 필요한 타입은 아니지만, 기후변화가 계속될 경우에 이러한 건물이 필요하게 될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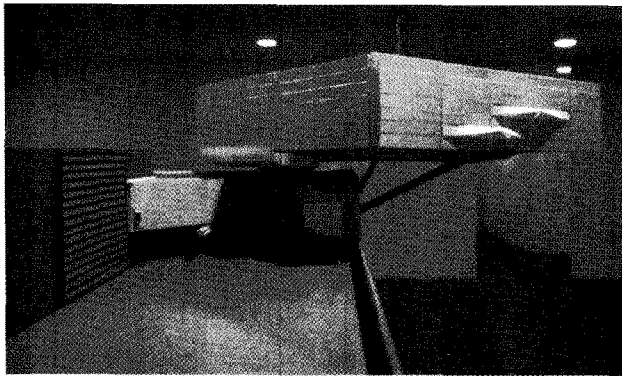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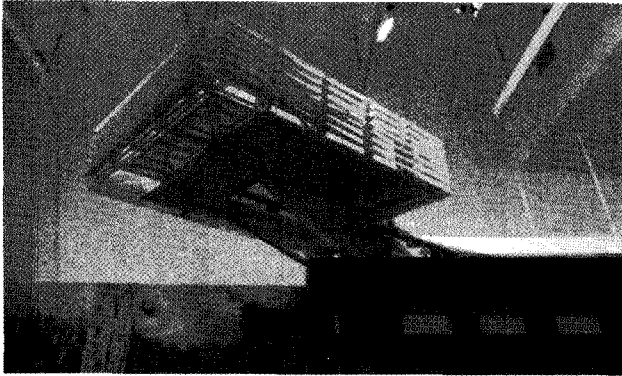


Courtesy of Aryan Crawford Omar

애런 오마르는 'I'll Huff and I'll Puff and I'll Blow Your House Down'(나는 훅 하고 네 집을 날려 버릴거야 - 앤탈롭 벨리에 위치한 바람을 모으는 자가 발전 주택에 대한 전래 이야기, "평원 위 최고로 흉한 주택", 모형은 풍선껌 핑크색으로 만들었다)

라고 불리는 8개의 극 사실주의영화 포스터에 그가 만든 이미지들과 그에 맞는 연속 주석을 달고 있다. 그것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경우이다. 그가 새겨 넣은 경구는 "광기는 모든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착취하려고 할 때 오는 영혼의 악이다.(David Hume)"와 "태양 에너지를 위한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석유산업을 소유한 소유주들이 태양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Ralph Nader)"이다. 오마르는 그의 변증법적 논리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이상들이 욕심 많은 기업들의 교묘한 책략에 의해 방해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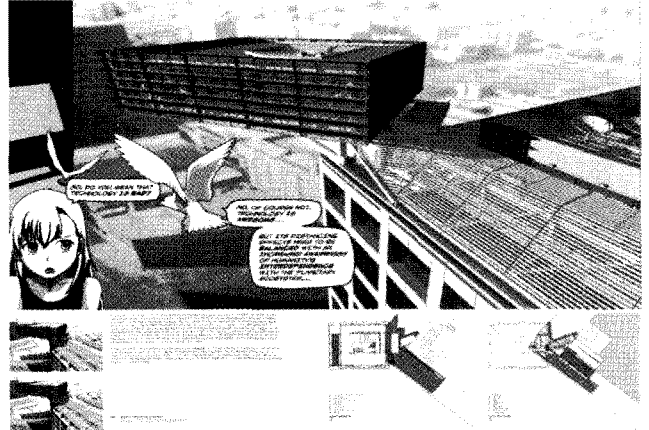
더그 잭슨의 출품작(Uneasy Green)은 환경적 테마를 표현하는 집이 위태롭게 월사이어 블로바드의 사무실 건물로부터 켈탈레버의 형태로 튀어 나와 있는 것이다. 순전히 장식용의 구조물이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집



Courtesy Doug Jackson

은 계속적으로 바람과 햇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움직이는 스킨을 가지고 있다. 이 작품 또한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거주자들은 자연의 변덕에 맞추어 살아야지, 자연을 지배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건축 드로잉들 사이에 끼여 있는 한 만화는 지붕의 형태 주위를 날고 있는 한 쌍의 비둘기에 들어 대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들은 "당신이 환경의 위기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해결할 지라도, 기술적 수단이 환경 자체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 가능하다는 가설은 환경비하라는 잔인한 지각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충고한다.



Courtesy of Doug Jackson

이 작은 전시의 가장 놀라운 점은 워트이다. 관람자들 모두가 렌더링 이미지와 모형들 그리고 만화를 후 그냥 훑어보고 갈지라도, 그들은 강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레비우스 우드와 벅 민스터 플러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친 아이디어들을 그냥 스쳐 보내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 잘 씌어진 공상과학 소설처럼 자동구동 되는 수경 지붕이라든지, 부끄러움 없는 "홍한" 바람 집 같은 것은 시대를 앞서며, 최고이며, 새로운 것이라는 기분이 들게 한다. ■